임실N치즈축제, 내년 일정 확정

군·축제제전위, 올해 종합점검·자체평가… 단계별 로드맵 보완키로

임실군은 올해 대성공을 거둔 임실N치즈축제를 내년 2020년에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키로 확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하고 있다.

임실군과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올해 축제를 종합적으로 점검, 자체평가하는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축제일정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민 군수를 비롯하여 제전위원과 대행사, 컨설턴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 축제일정을 의결하고, 2019임실N치즈축제 성과보고를 통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앞서 군과 위원회는 2019임실N치즈축제가 끝난 직후 참가 업체별(기관별) 소관사항에 대해 의견청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단계별 로드맵을 보완키로 했다.

군은 내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행사 선정 등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0임실N치즈축제가 관광객을 위한 산업관광형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태풍 미탁과 평일이라는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실N치즈축제 개최 이래 개막식 당일 역대 최고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는 축제 기간 무려 43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후에도 천만송이 국화꽃과 이국적 풍경을 선사하는 야간경관조명 등을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면서 축제를 전후해 6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축제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161억원의 지역경제 직접효과와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어 지역내 농가와 상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임실N치즈축제는 단순히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50여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무이의 치즈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고 지정환 신부님과 지역민의 열이 담긴 역사와 전통, 가치를 담아내며 임실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국 최초 순창 소스송, 유튜브 인기

내년 젊은층 공감 소스송 제작

순창군이 남녀노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순창소스송'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며 화제다.

군은 미래 먹거리로 소스산업에 역점을 두고 매년 자체 소스개발에 몰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현재 기존 전통 장류산업을 토대로 소스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소스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소스개발,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 발효소스토굴 운영 등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제작된 순창소스송도 순창소스를 주제로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스산업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순창소스송은 동요와 같은 음원과 노랫말로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장류축제와 함께 개최된 '2019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에서 관내 댄스동아리와 박람회 서포터즈들이 개막 퍼포먼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순창소스송은 순창소스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 또는 순창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소스송을 제작해 순창소스를 알리겠다"며 "순창의 소스산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순창쌀엿, e-마케팅페어 대상

순창군 마을기업인 (영)순창쌀엿(대표 임종우)이 28일 제11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온라인박람회 시상식에서 지역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온라인 박람회는 G마켓과 옥션에서 판매중인 전국 생산자 및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정보소외계층 판매자의 혁신적인 우수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최우수 사례 판매자를 선발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지역 박람회로, 행정안전부와 ㈜이베이코리아가 주최한다.

수상자는 e-마케팅페어 온라인박람회가 열렸던 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최우수 사례 판매자를 선발해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렸다.

(영)순창쌀엿은 이번 수상에 온라인 홍보와 판매방식, 추진전략, 고객만족도 향상 노력, 상품개발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착공

80억 원 투입 연면적 520평 규모 2020년 12월 준공 계획

순창의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발효산업의 전초기지인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난 28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80억원을 투입해 장류특구단지 내(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앞)에 연면적 1,728㎡(520평)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2개동으로 나눠 진행되는 센터 건립은 공장동에는 액체 발효미생물 생산라인과 공조설비 및 유틸리티 실, 고체 발효미생물 생산라인 등이 들어선다. 사무동은 지상 규모 3층 규모로 진행중인 가운데 지상 2층에 창업보육실 3곳을 마련해 발효미생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센터가 완공되면 발효미생물산업화와 발효식품제조업체 공급활성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발효미생물과 반제품원료를 생산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발효미생물 소재 수입에 6,500억원, 장류 주류 미생물 440억원 등 총 7,000억 정도로 추산되는 등 발효미생물 관련분야 시장규모도 무궁무진해, 군이 이번 센터 건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군은 앞으로 발효미생물 상품화와 사업화를 위해 발효미생물 산업 선도기업 및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100개가 넘는 기업에 맞춤형 전략으로 발효미생물 공급과 기술이전을 통해 수입미생물 시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센터내에 발효미생물산업에 관심이 있는 순창군 관내기업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 해볼 수 있는 창업보육공간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시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27일에 개최된 전북 2019년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상을 수상했다.

남원, 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치매예방 및 관리 등 내실화된 사업 추진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27일에 개최된 전북 2019년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2018년 11월 9일 남원시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인력이 상담, 조기 검진,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다양한 인지증진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뿐만 아니라 읍면 권역을 묶어 권역쉼터를 운영하는 등 가정과 마을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중점 추진했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분야 기관 우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2019년 농촌자원사업 분야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과 실천을 통한 정부혁신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예산집행률, 농촌자원분야 기술보급력, 전문인력 육성 및 문제해결 능력, 정부정책 실현 기여도, 성과확산 파급효과,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창출 등 6개 평가지표를 평가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기술팀은 ▲농촌 체험관광 ▲노인지도 및 안전관리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지역농업 특성화 등 4가지 분야의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여성 ▲지역소비자 ▲농식품 창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촌자원활용 맞춤형교육을 추진해 농촌안전과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 주택 건축분야 종합평가 우수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농어촌 주거 경관개선, 도시재생 분야, 건축행정 건실화 등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동안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재생사업 등 225동을 선정,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힘썼으며 공동주택지원 21개단지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131가구의 노후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도 했으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19가구의 서민층 주거수준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남원시는 대강면 사석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송동면 태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죽항동, 동충동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55억 6천만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택·건축행정을 펼쳐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